

電氣主任技術者 資格檢定試驗(電檢)제도의 운영과 그 시행의 一部 지방 이양에 대하여

논 설
21~6~1

강 석 규*
(Suk Kyu Kang)

1972년 8월 9일부(대통령령 제6316호)로 상공부장관은 電檢의 一部 3級の 시행을 지방장관에게 이양(권한 위임)하였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電檢은 1,2級은 종전대로 상공부에서, 3級은 종전에 상공부에서 1,2級과 같이 하던 것을 각 市·道에서 독자적으로 日時·場所·出題·採點 등을 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行政의 가능한 지방 이양」이란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국적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방 이양 그 자체는 일단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그를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電氣人으로서 그 추이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시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어 一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의 電檢 制度는 일제 시대의 것을 대체로 모방하여 만들어서 電氣主任技術者 資格檢定令으로 1962년 3월 27일 공포하고, 그 후 10년이란 세월을 매년 1회씩 電檢을 실시하여 그간 10회를 거듭하고, 금년에 11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 電檢 制度 실시에 의하여 電氣主任技術者 資格 획득의 실적을 보면,

1급 412명
2급 513명
3급 1,557명
계 2,482명

그내역 즉 자격획득 방법별로 보면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자

회수	년도	급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 격 율 (= 합격자수 / 응시자수)
1		1	6	5	17%
		2	27	1	
		3	250	43	

2	1	14	2	4
	2	63	3	
	3	463	15	
3	1	18	0	3
	2	79	3	
	3	600	16	
4	1	8	0	2
	2	25	2	
	3	350	67	
5	1	56	1	10
	2	106	7	
	3	661	74	
6	1	8	0	19
	2	75	13	
	3	767	155	
7	1	6	3	18
	2	120	10	
	3	865	172	
8	1	17	1	13
	2	193	27	
	3	1,480	176	
9	1	20	0	8
	2	353	26	
	3	2,158	171	
10	1	27	1	8
	2	439	3	
	3	4,741	432	
합 계	1	180	13	10
	2	1,480	95	
	3	12,335	1,321	
	계	13,995	1,429	

경과조치(1962~1966)에 의하여 전형(구술시험만)으로 자격을 획득한자

* 정희원 : 명지대학교 교수

1급 389명 }
 2급 373명 } 응시자수에 대한 합격율; 거의 100%
 3급 0 }

1967년 이후는 없음.

인정에 의하여 무시험으로 자격을 획득한자

1급 10명
 2급 43명
 2급 236명

1971년 이후는 없음.

여기서 경과 조치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자와 인정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자는 제외하고,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자만을 취하여論하기로 하였다. 이유는 경과 조치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할 자와 인정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할 자는 앞으로 없을 것이고, 이후로는 電氣主任技術者資格을 획득하려면 시험에 의하는 수밖에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이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자들의 취직 상황을 알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급 100%
 2급 100%
 3급 95%

1972.9 현재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제보

이들 表에서 우리는 매년 응시자수가 急增하고 있다는 것, 응시자에 대한 합격율이 비교적 낮다는 것, 그리고 합격자들의 취직율이 좋다는 것 등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응시자수가 급증하는 것은 산업 발전과 문화 향상에 따른 기술자의 需要가 증가한 데에서도 연유하겠지만 “합격만 하면 취직은 거의 확실하다”는 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 더 큰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어느 수준 이상이 아니면 합격시키지 않는 出題 및 採點과 엄격한 시험 관리로 말미암아 합격율이 비교적 낮았지만, 여기서 명실상부 실력있는 기술자가 배출되고 이것이 일반 사회 需要側의 신임을 받게되어 취직율이 좋아졌고, 오늘날 “電檢 합격자는 실력이 있다”는 定評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합격율과 취직율은 상관 관계를 이루고 취직율이 좋은 것은 바로 응시자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근래 전국 각 工高, 工專에서는 물론 一部 대학에서까지 電檢 합격율 실험테스트의 바로미터 또는 電氣界 진출의 관문으로 보고 이를 목표로하여 數萬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과거 10년 간 일관하여 쌓아 올린 우리 電檢 制度의 진통과 이제 겨우 사회에서 인정 받게 된 電檢 합격자의 권위가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물론, 각 市 道에 分散 이양했다고 해서 각 市 道에서 감당 못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전국 11개 市 道에서 각기 따로따로 시행하게 될 때, 예를 들어 出題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 出題 수준이나 범위를 맞추기란 至難之事實 것이다. 결과적으로 不適格 또는 실력 부족자가 합격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하겠고,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 순진하게 열심히 공부하던 젊은 工學徒들의 熱意가 비뚤어져 나가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은 어디가 쉬울까 또는 요령을 바라고 이 道, 저 道로 몰려 다니며 응시할 可能性이 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마감한 몇몇 市 道의 電檢 3級 應試 志願者數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아직 마감 안된 道가 있어 全國적으로는 알 수 없음)

	금년도(10월말마감) 응시 지원자수(3급)	작년도응시자수 (3급)
전 남	607	156
부 산	826	236
계	1,433	392

금년도 응시자수의 작년도 응시자수에 대한 증가율: 267%

위의 증가율 계산은 出願해 놓고 응시 않는 자도 있었으나 예년의 예로 봐서 그런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응시 지원자수=응시자수로 보고했다.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한 응시자수 增加率은 과거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추측한다면, 20~30%로 보는데 위 表에서는 260%가 넘었다. 이는 지방에서 실시함으로써 旅費절약 기타 好條件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기에 는 너무 큰 숫자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려보기로 한다. 電檢 一部의 지방 이양은 정부 施政方針의 일환으로 전체 흐름에 따른 조치이며, 이미 公布되어 실시 진행 중인 만큼 더 論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우려되는 폐단이 예견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첫째로 시험은 각 市 道에서 실시하더라도 筆答 問題 出題 만큼은 통일하여 全國 同一 問題로하고, 同時日에 일제히 시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웃 日本도 電檢 응시자수가 우리보다 몇 倍나 많지만 문제만은 전국 통일하여 同一 問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 구술시험만은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각 지방에서 시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래 구술시험이란 시험위원이 全應試者를 접견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分團하여 개인별로 상대할 수밖에 없고, 예년 구술

시험낙제자 수도 응시자의 5%도 안되었다.

두번째로 응시자수에 대한 합격율은 매년 약간씩 다르지만 20%이내였다. 또 각 지방별 즉 각 市道別 합격율도 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각 市道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상식밖의 합격을 및 합격율차가 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이제 겨우 수립된 電檢의 전통과 권위가 손상되지않게 되었으면 하는 심정 간절하다.

끝으로, 첨부하고 싶은 것은 筆答 試驗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改善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 電檢도 이제 응시자수가 5천을 넘고 매년 급증가고 있다. 筆答 試驗을 1,2次로 나눠 1次는 豫備 시험 성격을 띄어 간단한 客觀式 문제로 하여 도저히 합격권 내에 들수 없는 자들 (과거의 채점경험으로 봐서 응시자수의 60%이상으로 봄)을 떨어뜨리고, 2次는 本시험으로 하여 꼭 主觀式 문제를 추가했으면 한다. 위험한 電氣를 책임지고 다루는 主任 技術者를 결정하는 시험에서 客觀式만으로 한다는 것은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